

모두를 위한 플랫폼

-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박물관교육에 대한 논의

김은영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들어가며

II. 박물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의 범주

III. 다문화시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

IV. 국내 박물관교육의 한계점

V.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박물관교육 전략과 실천 모색

: 모두를 위한 플랫폼

1.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적 조직과 지원
2. 박물관교육 역할의 재설정
3. 협력: 내부 인력,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기관
4.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VI. 나가며

모두를 위한 플랫폼

-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박물관교육에 대한 논의

I. 들어가며

전 세계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력의 필요, 빈부의 양극화, 종교적 신념의 대립 등 다양한 사회·문화종교적 배경으로 이러한 국제 이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시대’란 말이 무색하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남녀성비 불균형이라는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이러한 이주민의 한국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 다문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¹⁾ 우리나라의 장·단기체류 외국인인 현재 200만²⁾ 명을 넘어섰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³⁾ 이에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자 이주민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였고, 2006년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동화주의적 성격’의 다문화정책을 펼쳤다. 이후 더욱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 등장으로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⁴⁾ 이에 우리

1) 심미경, 「미국 다문화 정책이 한국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다문화교육 개선에 주는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2016), p.442.

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9월 통계치임.

3) 우리나라 체류 중인 외국인인 2010년 120여만 명, 2013년 145여만 명으로 2050년경에는 그 수가 1,20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휴용, 2012).

4) 김영란 외,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의 역할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6-1(2013), pp.82-86.

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갈등으로 ‘통합integration’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⁵⁾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회통합에 대한 초기 논의는 일반적으로 일원화된 가치체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원화되고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체계들이 등장하면서 보편적이고 일원화된 가치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예로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적 습관이나 전통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한 문화로, 무슬림 터키인들과의 문화충돌이 사회·문화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⁶⁾ 로드리크Dani Rodrik은 한 국가 내부에서 사회갈등이 많은 국가는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주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잠재적 사회갈등 요소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적·언어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신을 들고 있다. 이주로 인한 다문화사회에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일들이 ‘갈등’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한방향이 아닌 구성원 간 서로 조화를 통해 그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의 개념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즉 다문화시대의 개개인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하는 과정으로 사회 내 여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고 동질감을 갖게 하며 합리적인 합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더 큰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며,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⁷⁾ 다문화시대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은 사회 구성원 개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신뢰, 포용성, 행복이 전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각 요소 간의 적절한 균형과 공존이 요구된다.⁸⁾

프랑스 사회학자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매개되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즉, 기억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집단적 특성을 지니

5) 이은미,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콘텐츠 방안 연구-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외훈련결과보고서』(2017).

6) 허영식·정창화,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독사회과학논총』22-1(2012).

7) 김영란 외, 앞의 논문, 2013.

8) 장용석 외,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학』46-5(2012).

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집단이 기억을 재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했다.⁹⁾ 이런 맥락에서 박물관은 박물관과 그것이 만들어진 나라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과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제도로 정치적 파급효과와 밀접하다.¹⁰⁾ 우리는 박물관 문턱을 들어서면 순간 박물관을 경험하게 된다. 종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점이, 횡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만난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사물을 맥락화하는 동시에 그 사물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맥락을 창조하는 곳이다. 박물관은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라 할 때, 사물에 기반한 역사성과 문화성은 고정적으로 사물화 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화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그 ‘앎’과 ‘행함’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또 그 순간을 일으키기도 하는 동적 공간인 것이다.¹¹⁾ 또한 다양한 문화적, 이념 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만나게 된다. 다문화시대 박물관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경험·공감하며, 각자의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 받고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수평적이고, 인종, 종교,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울려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박물관은 사회적 요구와 환경에 대응해야 하며, 박물관의 핵심가치에서 획기적으로 확대될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¹²⁾ 여기서는 이러한 다문화시대에 사회적 통합이라는 가치 하에 박물관교육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른 담론과 이에 대한 박물관교육 전문 인력의 실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박물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의 범주

다문화시대에 큰 의제인 이주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기로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통의 문제임에도, 국가 간 혹은 그 나라의 문제일수도, 구조적인 문제이자 개

9)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2009), p.1.

10) Zolberg, V, *Museum as connected sites of rememb(e)rance*, Theorizing museum, (Oxford: Blackwell, 1996).

11) 최성희, 「미술 박물관 경험을 통한 “관계형성”의 가능성: 관람자의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미술과 교육』 9-1(2008); 김성은, 「미술의 매체이자 인식의 기술로서 박물관-쉽 박물관의 제임스 터렐과 호림 박물관의 지니 서의 사례」, 『고문화』 77(2011); 정혜연,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미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한 지식 창조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 16-3(2015).

12) 배기동, 「박물관의 미래: 소통과 융합을 통한 신박물관」, 『박물관교육연구』 9(2013).

인적인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며, 계급의 문제이자 인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복잡성 때문이다. 또한 이주로 인한 다문화 현상은 근대 민족국가 체제(근대 제조들) 및 그에 조응해서 구성되었던 근대 사회과학 체계의 정당성에 관해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탈전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¹³⁾ 따라서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은 어떠한 명료한 개념으로도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1994년 UN이 개최한 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는 핵심 아젠다의 하나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다차원적으로 정의한다. 첫 번째는 배제와 대비되는 포용이라는 의미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의, 물질적 복지, 정치적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해체와 대비되는 조화와 유대(harmony and solidarity)라는 의미로서, 가족·공동체 등이 해체되고 범죄나 부패 등으로 사회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사회통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는 사회통합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민주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한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⁴⁾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에 합의하였는데, 여기서 ‘문화다양성’은 집단 및 사회의 문화가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문화 간의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공유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각 국가의 다문화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¹⁵⁾ 2010년 ICOM에서는 ‘사회적 조화’라는 슬로건 아래 다원주의, 다양성, 경쟁, 창성에 바탕을 둔 대화, 관용, 공존, 발전을 특징으로 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우르는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모든 민족집단과 문화들(지배문화와 하위문화, 다른 사회적 계층들 간의 문화까지 포함), 모든 국가와 그 문화들, 다른 종교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박물관은 다문화간 상호 소통과 이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⁶⁾ 결국 통합의 개념은 분야와 쟁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어 구체화될 수 있는데, 박물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로서의 통합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다양한 개인이나 지역들이 고유한 개성과 능

13) 오경석, 「다문화와 민족국가: 상대화인가, 재동원인가?」, 『공간과 사회』28(2007).

14) 이재열 외,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21(2014).

15) 김영란 외, 앞의 논문, 2013.

16)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29(2011) ; An Laishun, *How museums can promote and contribute to social harmony*, ICOM News, No.2(2010).

력, 그리고 특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울려 역동적인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상호 소통은 이질적인 개인과 문화 간의 이해관계와 권력에 대한 욕구, 갈등 등이 해소되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III. 다문화시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

교육의 기능은 박물관 고유의 역할 중 하나이다. 현대의 박물관은 변화와 교육공간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¹⁷⁾ 국내 박물관교육의 본격적인 전개와 발전의 시작은 1970년대로 보며, 2000년부터는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공·사립박물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과 형태로 박물관교육이 진행되었다.¹⁸⁾ 특히, 2007년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미술관의 정의에 ‘교육’을 포함하는 제도적 전환점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부터 국내 박물관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편화되는 시점이다.¹⁹⁾ 국내 박물관교육의 개념은 좁은 범위, 즉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대상에 맞춰 어린이·가족, 청소년, 일반인, 장애인 등의 형태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주로 우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부각되는 이러한 현상은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미국,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당시 제국주의의 쇠퇴와 자본주의의 성장 등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 속에서 박물관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소비 시장의 성장은 박물관을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로 편입시켰고 자연스럽게 성공의 척도는 일종의 소비자인 관람객의 확보로 가늠되었다. 이렇게 박물관은 다수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위해 관심을 전시물의 수집과 조사·연구에서 교육, 즉 관람객의 전시 해석과 수용의 측면으로 돌리게 된다.²⁰⁾

17) 김인희, 『다문화시대 박물관교육』(서울: 문음사, 2009); 주재홍, 「다문화사회에서의 박물관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재개념화」, 『교육문화연구』22(2016); Suina J. H. (2nd ed)(1999) *Museum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learners*, The educational role of museum, London: Routledge; Eileen Hooper-greenhill(2007), *Museums and Education: purpose, pedagogy,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18) 국립박물관에서는 1946년 관내 박물관 직원의 계몽과 연구의 진전을 위한 연구 발표회를 시작으로 1949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미술헌강좌가 진행되었다. 1954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된 어린이박물관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져 운영되고 있다.

19)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서울: 예경, 2005), pp.40-46;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서울: 문음사, 2010).

또한 20세기 후반 들어 시작된 신박물관학에서는 오랫동안 권위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 온 박물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²¹⁾. 토니 베넷 Tony Bennett은 박물관의 지식과 권력의 담론 관계에 있어 “대중을 통해서 그리고 대중에 의해서 실행되고 전달된다”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박물관 연구에 있어 관람객 중심의 실제적이며 일상적인 규명에 귀결한다.²²⁾ 로버트 럼리 Robert Lumley는 1980년대의 전 세계적인 박물관의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붐 속에서 박물관 자체도 변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제 박물관은 특수한 시설이나 제도라는 좁은 의미에 머물지 않고 일종의 사회적 은유로 간주되었고, 그런 만큼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의 지형도를 그리는 어렵고도 논쟁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 뿌리에 대한 논의를 뒤로하더라도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구성주의 교육이론, 존 포크 & 린 디어킹의 맥락적 학습모델 등 박물관교육의 핵심적 논의점은 ‘학습자 주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과정’에 온 관심이 모아졌다. 박물관에서 절대적 존재 가치로 여겼던 ‘소장품’에서 이를 해석하는 주체 ‘관람자(학습자)’ 중심으로 관점 이동, 정치적 담론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지닌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식은 학습자의 선행지식, 경험과 환경 등에 따라 다시 구성된다는 학습자 중심의 심리적·학습적 이론은 ‘관람자(학습자)-박물관-역사(사회·문화·정책담론)’라는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박물관은 현재 우리사회의 다양한 고민과 갈등-고령화·다문화 사회, 빈부의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등-을 지리적, 역사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갈등의 차이를 좁혀 나가 서로의 문화에 공감하고 지지하며 발전적인 의미와 맥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이슈와 사람들을 포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견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고요한 전시장 안 관람객이 전시품 앞에서 듣는 도슨트의 설명은 모두가 현상의 전부이자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전히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공간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며, 전시실의 설명문은 전시품의 모두가 포함된 전체이자 진실로 여겨진다. 박물관에서 관람객은 얼마나 주체적인 존재인가. 하나의 전시 의도를 갖고 태어난 전시 안에서 관람객은 얼마나 그

20) 조혜진, 「박물관 ‘전시’의 역사교육적 함의와 활용 방안」, 『역사교육』134(2015) ; Eilean Hooper-greenhill(1994), *Museum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Routledge.

21) 주재홍, 앞의 논문, 2016, p.288 ; Vergo, P.(ed.)(1989), *The New Museology*, Reaktion Books.

22) 박소현, 앞의 논문, 2011.

리고 어떻게 그 사실과 현상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개인 기억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기억은 동상이나 기념물 같은 물적 대상뿐 아니라 개인의 타인에 대한 정신적 행위까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의 속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한다.²³⁾ 여기서 박물관의 전시와 전시품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인 진리이기보다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상황에 따라 때론 더해지고 때론 배제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전시와 교육 과정 속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학습 주체에게 부여하고 역사적·시각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관람객의 역사·시각적 문해력Historial·Visual literacy은 어떠한 사실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가치와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박물관교육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역사 문해력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알고,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그러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그 설명이 어떤 역사적 증거와 주장들에 기초한 것인지, 어떤 역사의식을 추구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역사 지식을 구성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왜 그러한 것이 일어났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답해 볼 수 있는 특성과 관련된다. 힐러리 쿠퍼Cooper는 역사적 탐구란 과거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추론하고, 사료에 대해 연역하고, 시간, 원인과 결과, 동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주장한다.²⁴⁾ 시각 문해력이란 이미지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한 인지부터(자기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기), 맥락적, 은유와 철학적 수준의 복잡한 해석의 기술까지 포함한다. 학습자는 개인적 관련성, 질문, 예상하기, 분석하기, 사실 조사, 분류하기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 객관적 이해는 문해력의 전제가 되는데, 주관적이거나 정서적인 기존의 지식도 역시 중요하다. 시각적 문해력은 보통 학습자(관람자)가 보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황적인 증거에 기초해서 직면한 것에 대해 나름의 이해로 시작하여 발전한다. 결국 그 제작자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것과 관련된 사고를 하고 또 이를 응용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결론과 판단에 이르게 한 정보를 습득한다.

23) 양호환, 앞의 논문, 2009.

24)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16(2012).

전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전시를 친절히 안내하면서 관람자의 이해를 돕는 영상물, IT 기술 등의 형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핸즈온(hands-on) 방식의 관람자 중심의 체험전시도 도입되었다. 또한 체험식 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며 어린이박물관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인 브루클린어린이박물관(Brooklyn Children's Museum)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어 문을 열었다.

IV. 국내 박물관교육의 한계점

국내 박물관교육은 좁은 의미²⁵⁾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박물관교육이 보편화된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이러한 연구들의 활성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교육대상과 전시품을 중심으로 유물이나 전시패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이 지적하고 있다.²⁶⁾ 그동안의 전시품과 공간, 전시품과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끊임없이 관계맺음을 통해 생산하는 학습자 중심의 이론적 배경에도 '체험'과 공예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일치화하며 이를 박물관교육의 전부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 본다.

데이비드 에비츠(David Ebitz)는 세 차례에 걸쳐 박물관교육 담당자들이 모이는 학술대회에서 자신들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에 대한 설문을 거쳐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나열·제시함으로써 박물관교육자들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구했다.²⁷⁾

25) 박물관교육은 '교육'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구조적 틀로 인해 자칫 경직되고 일방적인 소통의 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박물관이 갖는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기본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첫째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모든 소통의 활동, 즉 소장품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 활동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팽의의 박물관교육 개념). 둘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 형식의 활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보통 박물관 교육은 후자에 한정하여 생각된다(협의의 박물관교육 개념).

26) 최성희,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에서 미술작품의 해석과 교육방법」, 『미술과 교육』7-2(2006) ;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 정혜연, 앞의 논문, 2015.

27) David Ebitz(2008), *Sufficient Foundation: Theory in the Practice of Art Museum Education*, Visual Arts Research, Vol. 34-2.

표 1. NAEA(N 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컨벤션 2005/2006, MESC(Museum Educators of Southern California) Workshop 2007 참석 박물관 교육자들의 인용 이론 및 이론가 빈출빈도²⁸⁾

이론가Theorist 또는 이론Theory	빈출빈도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er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34
아비가일 휴센&필립 예나윈Abigail Housen &Philip Yenawine 시각적 사고 전략(VTS) Visual Thinking Strategies	31
존 듀이John Dewey 경험주의Experience and Education	20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i Csikzentmihalyi 몰입/최적의 경험점Flow or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20
장 피아제Jean Piaget 인지 발달 이론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15
레프 비고츠키Lev Semyonovich Vygotsky Sociocultural Theory of Learning	13
구성주의Constructivism	10
존 포크 & 디어킹John H. Falk & Lynn D. Dierking 맥락적 학습모델Contextual Model of Learning	10
미술 교육론(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8
물체 기반 학습Object-based Learning	6
Project Zero ²⁹⁾ Teaching for Understanding	5
듀이Dewey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Learn by Doing	4
Maxine Greene Releasing the Imagination	4

주로 언급된 이론으로 역사와 비평, 미학을 중점한 적용 이론인 물체 기반 학습(OBL), DBAE,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관심이 높았던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³⁰⁾과 비고츠키의 이론 등이 있다. 표1을 통해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 박물관교육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시각적 사고 전략(VTS)을 통한 교육 적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시기는 다소 차이를 두었지만, 이와 비슷하게 박물관교육을 주제로 검색되어진 국내 석사논문을 한정하여 기반 이론가와 이론은 다음과 같다.

28) 인용 빈출빈도 3회 이하 이론가와 이론은 제외하였다.

29) 하워드 가드너의 창조성, 교육방법론, 두뇌개발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

David Ebitz(2008), op. cit.

30)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을 설명한 심리학

표 2.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국민대, 서울교대 석사학위 논문(N=150) 중 언급된 박물관교육 이론

이론가Theorist 또는 이론Theory	빈출빈도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er 다중지능이론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14
아비가일 휴센&필립 예나윈Abigail Housen & Philip Yenawine 시각적 사고 전략(VTS)Visual Thinking Strategies	1
존 듀이John Dewey 경험주의Experience and Education	20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zentmihalyi 몰입/최적의 경험점Flow or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16
장 피아제Jean Piaget 인지 발달 이론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9
레프 비고츠키Lev Semyonovich Vygotsky Sociocultural Theory Learning	22
구성주의Constructivism	38
존 포크 & 디어킹John H. Falk & Lynn D. Dierking 맥락적 학습모델Contextual Model of Learning	41
미술 교육론(DBAE)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2
물체 기반 학습Object-based Learning	37
Project Zero Teaching for Understanding	1
듀이Dewey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Learn by Doing	5
Maxine Greene Releasing the Imagination	4
G. Hein	24
Hooper-greenhill	14
Bloom	4

국내 2010년에서 2014년 발표된 석사논문을 중심³¹⁾으로 ‘박물관교육’을 주제로 검색된 150편의 논문에 인용된 이론과 이론가 빈출정도를 분류했다. 이론은 중복, 교차하여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언급한 기반 이론은 구성주의, 맥락적 학습모델, 물체 기반 학습이었다. 또한 가드너와 하인 등의 이론은 이론적 배경으로 중복·언급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박물관교육은 논의되고 있는 많은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론을 근거한 확정적인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박물관교육 담당자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통계 등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하겠다. 관람객의 요구와 분석, 학습자와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연구는 박물관교육의 정당성을 지지해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전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31) 관련 전공학과가 있는 대학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국민대, 서울교대 다섯 곳에 한정하여 분류했다.

또한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가 좁은 의미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으로는 박물관교육이 주로 마케팅 차원에서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식 또는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학습효과 창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체험활동 자체를 강조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물관교육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근본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³²⁾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와 담론이 반영된 넓은 의미의 박물관교육은 논의되지 못한 채, 협의의 교육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축소시키고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박물관 교육의 양적 증가와 확대로 거시적으로 박물관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방법론에 대한 공유된 합의는 요원하다.³³⁾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박물관의 교육적 가치를 담는 박물관교육에 대한 목표 설정이며, 그러한 목표로 문화적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제안하는 일이다.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단위 사업이 아닌, 사회적 갈등과 변화에 창의적 동력을 불어 넣어줄 지속가능한 박물관 교육을 위해서는 개인과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가치적 지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담론을 통해 도출해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전략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V.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박물관교육 전략과 실천 모색 : 모두를 위한 플랫폼

다문화시대에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박물관교육의 역할은 개개인의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의 존중, 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체, 집단(혹은 문화) 간 소통을 통한 개방과 협력,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 또는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가치에 그 방향성을 둔다. 이러한 방향성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적 조직과 지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박물관 지원 기구인 박물관도서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32) 양지연,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2(2002).

33) 배기동, 앞의 논문, 2013.

and Library Services: IMLS, 연방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연방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연방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등에서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수평적 정책 과정이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다. 지원 정책 형성과 집행, 평가에 있어 의회와 박물관협회, 지역 정부 및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와 박물관 현장의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특히 IMLS는 박물관이라는 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다.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 협의체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는 건전한 박물관교육 담론을 생성하는 데 큰 조력자이기도 하다. 미국박물관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새로운 세기를 위한 박물관Museums for a New Century』(1984)에서는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교육 부서나 교육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며, 박물관 전체의 모든 활동이 교육적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³⁴⁾ 국내 박물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기구는 박물관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박물관교육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으로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가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과 역시 문화예술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학교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 박물관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의 사회정책 등으로 분화되어 있어 문화적 차원에 대한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물관이 다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 동의를 불충분하다. 무엇보다 박물관이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박물관교육에 관심을 둔 체계적인 조직과 지원이 우선이다.

2. 박물관교육 역할의 재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박물관교육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제한점은 학습이론에 국한되어 대상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는 박물관교육에 대한 역할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문화

34) 최종호 외, 앞의 책, 2010.

관점에서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 설정은 다문화적 정체성들을 전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³⁵⁾ 실제로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전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다.³⁶⁾ 또한 전통적인 단일의 문화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가 가진 다양한 문화와 아젠다를 보여 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시와 관람객이 만나 재해석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맥락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간 간극은 좁혀지고 또 다른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현재 자문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과 행사에 대한 시도도 더욱 다각화 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은 보다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박물관이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해체적 공간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박물관을 유지해 오던 근본적인 가치 체계와 권력에 대한 해체적 관점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제공하고, 비판적인 사고와 관점을 함양 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³⁷⁾ 베를린의 유대인박물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겪은 역사적 상흔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박물관이 시대적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³⁸⁾ 한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담은 전시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또한 소수문화가 지배문화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포용하며, 다양한 문화가 수평적으로 존재함을 알려야 한다. 이주가정 자녀들의 비교적 낮은 학업능력과 사회로의 진출 등으로 겪는 고민과 갈등 등을 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의 참여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3. 협력: 내부 인력,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변화하는 미술관: 새로운 관계들”에 ‘창작자로서 관람객’이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영국 미들즈브러현대미술관Middlesbrough Institute of Modern Art, MIMA 알리스테어 허드슨 관장은 전시, 교육, 지역참여 활동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술관의 사용자인 지역주민들이 예술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러한 실천으로 전시와 교육 부서를 하나로 운영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은 보다 지역주민이 예술 생산의 주체가 되기 위한 창의적인 작업임을 밝혔다.³⁹⁾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정

35) 주재홍, 앞의 논문, 2016.

36) 박운옥, 「박물관과 문화정체성」, 『박물관학보』19(2006).

37) 주재홍, 앞의 논문, 2016.

38) 구연정, 「트라우마의 역사와 부재의 체험: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0(2011).

체성에 대한 담론을 담기 위해서는 전시큐레이터, 소장품관리자, 보존과학자, 교육담당자, 홍보 등 박물관 내부 인력은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내부 조직이 구성되어야 관람객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문화와 문화간의 관계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전문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전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학계, 연구기관과 학교 등이 함께 공론의 장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아젠다를 도출하고 협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으로써 언어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 등의 예측 가능한 갈등과 더불어 예기치 않은 많은 갈등도 예상된다. 전시, 교육, 행사 등이 적극적인 관람객을 형성, 참여집단으로 본다면, 그 외 잠재적 관람집단인 사회의 수많은 개인,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에서 박물관에 와 잠시 위안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본다면 박물관은 누구에게나 쉼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국적이 다른 부부가 다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감하며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어 학교 가기가 망설여지는 이주결혼여성의 자녀가 박물관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맞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시대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누구나에게 편협한 사고와 경직된 경계와 문턱을 낮추고 없애 그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기 원하는 공간이 된다. 니나 사이먼Nina Simon은 박물관이 관람자의 삶 속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변해갈 소통(적극적인 IT 활용, 참여적 설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참여적 박물관’ 개념을 이야기한다. 박물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언어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 형태를 독려해야 한다.⁴⁰⁾

VI. 나가며

Kaepler(1994:21)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말살하는 힘일 수 있는 것도 바로 박물관이다”라고 했다. 이는 박물관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경계이자, 박물관이 한 사회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문화시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39) 권민영, 「뮤지엄3.0: 예술소비에서 생산의 기지로」, 아르테 리포트(www.art.or.kr), 2016.

40) 니나 사이먼, 『참여적 박물관』(고양: 연암서가, 2015).

에 대한 합의는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개인 모두를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으로 사회 내 여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고 동질감을 갖게 하며 합리적인 합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박물관을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은 '관람객'과 '참여'이며 박물관은 다문화시대라는 시대변화에 빠르게 부응해야 할 의무가 있겠다. 그러나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는 존재한다. 아직 불충분한 박물관교육 이론과 박물관교육에 대한 낮은 의식과 국한된 업무범주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에 박물관이 가치 있는 교육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발전과 지원이 가능한 조직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둘째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박물관교육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제 박물관교육은 박물관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 역할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맥락을 읽고 그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관람객과의 소통만큼 조직 내부자의 협력관계,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은 더욱 단단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를 위한 실천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멀리 러시아에서 한국언어를 배우러 온 유학생, 10명의 대식구 생계를 책임지러 온 스리랑카의 가장, 아버지를 따라 세 번째 나라를 옮겨 이사 온 영국의 아이 모두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환경 등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만난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 것인가?

〈참고문헌〉

-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 16, 2012.
- 구연정, 「트라우마의 역사와 부재의 체험: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0, 2011.
- 김민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 학습」, 『역사교육연구』 16, 2012.
- 김성은, 「미술의 매체이자 인식의 기술로서 박물관」, 『고문화』 77, 2011.
- 김인회, 『다문화시대 박물관교육』, 문음사, 2009.
- 김호숙,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 실학』 13, 1999.
- 박소영, 「박물관을 활용한 초등학교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 『역사교육연구』 16, 2012.
-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 29, 2011.
- 박윤옥, 「박물관과 문화정체성」, 『박물관학보』 19, 2006.
- 박휴용, 『비판적 다문화교육론』, 아담북스, 2012.
- 배기동, 「박물관의 미래: 소통과 융합을 통한 신박물관」, 『박물관교육연구』 9, 2013.
- 백 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교육』, 예경, 2005.
- 양지연, 「박물관 ·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2, 2002.
-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 2009.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 2007.
- 이광일, 「문화다양성과 박물관 교육」,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 2013.
- 이은미, 「다문화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외훈련결과보고서』, 2017.
- , 「교육이 박물관을 바꾼다-다문화 사회, 소통을 위한 박물관교육」,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2011.
- 이재열, 조병희, 장덕진, 유명순, 우명숙, 서형준,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 2014.
- 장용석 외,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국가주의, 개인주의, 공통체주의, 세계시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 2012.
- 전상진, 「통합은 사회 갈등과 문제의 해결책?」, 『한 · 독 사회과학논총』 16(2), 2006.
- 정혜연,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박물관 · 미술관 교육의 미래-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한 지식 창조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연구」, 『미술과 교육』 16, 2015.
- George E. Hein: 안금희, 김해경, 김선아, 정혜연 역, 『박물관 교육론』, 학지사, 2015.
- 조혜진, 「박물관 ‘전시’의 역사교육적 함의와 활용 방안」, 『역사교육』 134, 2015.
- 조홍식, 「박물관의 정치학-유럽국가의 문화 경쟁」, 『통합유럽연구』 8, 2017.

John H. Falk · Lynn D. Dierking; 노용, 이주연, 류지영 역, 『박물관교육의 기본』, 미진사, 2007.
 주재홍, 「다문화사회에서의 박물관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재개념화」, 『교육문화연구』 22, 2016.
 최성희, 「미술 박물관 경험을 통한 “관계형성”의 가능성-관람자의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미술과 교육』
 9, 2008.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An Laishun (2010) *How museums can promote and contribute to social harmony*, ICOM News,
 No.2.

Carol B. Stapp (1984) *Museum Literacy: Ideology and Methodology*, Roundtable Reports, Vol.
 9(1).

David Ebitz (2005) *Qualification and the Professional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Art Museum Educators*, Art Education.

David Ebitz (2008) *Sufficient Foundation: Theory in the Practice of Art Museum Education*,
 Visual Arts Research, Vol. 34(2).

Elliot W. Eisner and Stephen M. Dobbs (1988) *Silent Pedagogy: How Museums Help Visitors
 Experience Exhibitions*, Art Education, Vol. 41(4).

James Flood (ed.) (2008)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Literacy through the
 Communicative and Visual Arts*, New York: Routledge.

J. Barrand (1968) *Museums and the Teaching of History*, Teaching History, Vol. 1(2).

Suina J. H. (2nd ed) (1999) *Museum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learners*, The
 educational role of museum, London: Routledge.

Peter Vergo (ed.) (1989) *The New Museology*, Reaktion Book.

Zolberg. V (1996) *Museum as connected sites of rememb(e)rance*, Theorizing museum, Oxford:
 Blackwel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Abstract

Platform for All-Discussion on museum education for social cohesion in the multicultural era

Eunyoung Kim
Museum Educator, Jeonju National Museum

Migration leads the world into the multicultural era. In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find solutions for harmony, coexistence and conflicts among citizens from different culture. Though the nation's multicultural policy had focused on the government-led social cohesion, now is the time to implement policies and measures for respecting and harmonizing diverse social groups and culture. In the context, museum can become the best place to integrate multicultural values. First, the introduction of new museology has changed the paradigm of museum from exhibition to visitor. The biggest issues for museum operation are how museum will deliver its program to visitors and how they will receive them. To tackle the issue, psychology and pedagogy have combined with museum education theories. Second, museum is a place of political intention and purpose. In the multicultural era, social cohesion is achieved when various cultures can exist horizontally and harmoniously regardless of race, religion and region. In this regard, museum can become the optimal education space where different agendas get together. Museum is a place where people can go beyond the horizontal boundary of nation and group and the vertical boundary of time. For social cohesion, museum should fulfill its educational role. Rather than focusing on individual museum's program, we should redefine the role of overall museum education by providing more integrated organization and support. Museum can provide a place for mutual understanding and sympathy on various culture while considering any isolated cultural identity. Museum education is necessary to get out of narrow sense of educational programs and to respond to the change and needs of the time.

Keywords: Museum, Multicultural Era, Social Cohesion, Optimal Education Space, Museum Education